

삼성 ‘로봇’, 포스코 ‘친환경’, 기아 ‘중고차’ 新사업 현실화

산업계 미래 먹거리 확보 드라이브

삼성전자, 로봇시대 선제적 대응
초격차 위해 연구·개발 지속 투자

포스코, 지주사 중심 체계 본격화
친환경 가치 실행으로 성장 지속

기아, 고개중심 브랜드경영 고도화
사업목적에 중개업 추가 안전 승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기아 등 국내 산업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 15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글로벌 경기침체 확산 등 고금리 여파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도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지목했으며, 반도체 한파 속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왼쪽)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3월 1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진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고객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갑 테크(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비전 구체화 계획과 함께 향후 로봇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한 부회장은 “올해부터 걷기



운동용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은 신규 응용처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을 예상한다”며 “특히 데이터 센터의 경우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 출시와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으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확보를 위해 필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설비 투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터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회사는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주회사 중심의 경영 체계를 본격 가동해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친환경 가치 실행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부문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지닌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하고 저탄소·친환경 생산 판매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리튬, 니켈 생산 본격화와 신규 자원 저탄소 원료 확보 등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주총에서는 현안 중 하나였던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서울에서 포함

이전을 포함해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임 사외이사로 김준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사내이사로 는 정기섭 전략기획총괄(CSO, 사장),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부사장)을 선임하고, 유병욱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부회장)를 각각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했다.

기아는 이날 서울 양재동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제7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송호성 사장은 인사말에서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영 고도화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 실행 체계 구축, EV 9등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판매 320만 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총에서는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위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이 승인됐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년 유예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제로턴’ 핵심기술 개발 성공

(제자리 회전)

4륜 독립 구동·제어 ‘인휠 시스템’ 별도 동력전달 부품없이 효율성 ↑

현대모비스가 차량 네 바퀴 안에 구동모터와 제동장치를 각각 장착해 독립 제어하는 ‘인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차량 바퀴에 자유를 줘 사용자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리 회전(제로턴)이나 게터럼 옆으로 이동하는(크랩주행) 특수한 움직임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향후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각 바퀴를 모터가 직접 제어하는 4륜 독립 구동 인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휠 시스템은 구동모터와 제어기 기술이 핵심으로 현대모비스는 관련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아이오닉5 기반으로 개발 차량을 구성해 현대차와 함께 양산을 위한 신뢰성 검증 작업을 진



현대모비스 인휠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행하고 있다.

인휠은 전동화 차량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인휠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인휠은 차량 바퀴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넣는 개념이라 설계 과정이 까다롭고, 동력 성능 및 내구성 확보 등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인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동력 효율 및 전비 향상 ▲항속 거리 증대 ▲

주행 성능 개선 ▲특수 모션 구현 등이다. 우선 차량에 인휠 시스템을 적용하면 드라이브 샤프트(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기계 부품)와 같은 별도의 동력 전달 부품이 필요 없어 구동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전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휠 시스템은 전동화 차량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기존 구동시스템이 바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휠은 네 바퀴를 각 모터가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구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적의 선회 성능이나 차체 자세 제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4륜 인휠 시스템은 전후좌우 효율적인 토크 분배를 통해 선회 성능 향상과 함께 약 20% 이상의 전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휠 시스템을 적용하면 제로턴이나 크랩 주행 등 특수 모션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르노코리아 ‘더 뉴 QM6’ 출고 이벤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라이프 스타일 SUV ‘더 뉴 QM6’의 출고를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3월 중 더 뉴 QM6를 출고하는 1000명의 고객에게 구매 후 1년 내 차량 파손 시 새차로 교환해 주는 ‘내차 케어 보험’에 무상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

LGD OLED TV패널 탄소감축 효과 인정

카본트러스트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이 탄소 감축 효과도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카본트러스트에서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품이 카본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산전 표준에 맞춰 제품 생산과 출하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하게 검증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부터는 초미세먼지(MLA)와 휘도 강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메타 테크놀로지’로 에너지 효율도 더 높였다.

/김재웅기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자동화 등 글로벌 리더십 공고화

스마트홈 연합 CSA 멤버 미팅 참가
매터 결과 검토, 전략·협업 등 논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을 논의한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스마트홈 글로벌 표준 연합 CSA 멤버 미팅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CSA 134개 회원사에 500명 이상 멤버들이 모여 매터 표준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술 주제를 비공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매터 1.0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매터 결과를 검토하고 전략과 협업 모델을 협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CSA 보드 멤버로 매터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왔을 뿐 아니라, 매터 컨트롤러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스마트싱스 플랫폼 전략을 소개하고 자동화 등 주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

SK엔무브

ZIC 신제품 ‘X8·X10’ 출시기념 리뷰 이벤트

SK이노베이션 윤활유 자회사인 SK엔무브가 SK ZIC(지크) 신제품 X8, X10을 출시하고 출시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SK엔무브는 X8, X10 ZIC 신제품

출시 기념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며, SK ZIC 공식몰에서 제품 구매 후 리뷰를 남기면 참여자 모두에게 500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제품뿐 아니라 SK ZIC 공식몰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이 리뷰 대상이며, 베스트 리뷰에 선정된 10명에게는 2만 네이버 포인트를 증정한다. /허정운 기자 zelkova@